

106호 2026 09월 15일

발행인: 김화룡 / 편집인: 김태식 / 편집: 박시은 / 편집디자인: 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5010-4614/15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21 1122 8827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pto, Jakarta Pusat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Vol. 106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5
0858 9060 0962
pt.kwan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사진=한인뉴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대사관 대강당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

소개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 의례에 이어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순구 대사가 대독한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칠혁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 질서 격변의 분수령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고 어떤 나라도 대신

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전쟁을 종식하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차이가 적대가 되지 않고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해 희망·기회·균형·평화의 새로운 광복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광복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책임이며 내일을

향한 약속”이라며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 차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정체성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김우재 한인회 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찬 만세를 외치는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인사회의 결속을 다졌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은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한인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성료

총 13억 900만 루피아 조성...
JKKS 및 다문화가정에 4억 3천만 루피아 우선 전달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헌)가 주최한 ‘제2회 2026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8월 14일 남부땅그랑 BSD 골프장(Damai Indah Golf BSD)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윤순구 대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헌 회장, 양영연 명예회장, 김우재 명예고문 등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기업인, 한인동포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플래티넘부터 브론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 후원 구좌에 한인 기업과 단체들이 동참하며 총 13억 900만 루피아의 기금이 모였다. 한인회는 이 중 4억 3천만 루피아를 장학금으로 우선 전달했다. 특히 올

해는 지원 대상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KS)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넓혔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김경국 재단이사장, 임주섭 교감)에 4억 루피아를, 재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후원회가 추천한 이아름 학생(최상재 고문, 이채민 교사 대리 수령)에게 3천만 루피아를 각각 지급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자카르타한국국제재단 김경국 이사장은 “작년 후원금을 뜻깊게 잘 썼고 올해 기금 역시 소중하게 집행하겠다”며 “현재 전교생 7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고, 매년 1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전액 지원은 30여명 수준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최태립 부회장이 2명의 학생에게 개인 장학

금을 후원했듯, 차세대 인재 육성에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추천 소감을 전한 이채민 교사는 “선정 소식을 전하자 학생이 감사하다는 말 대신 울먹였다”며 “남편 없이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해 온 학생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전달된 장학금 외 잔여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지속 적립하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한인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장학생 추천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2회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사진=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윤순구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가 모범적인 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대회를 기획하고 동포들을 모아준 한인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김종헌 한인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후원해 주신 기업인들과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에게 한인사회가

결에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70인치 TV를 비롯해 무궁화유통 자체 브랜드 ‘불면’, 단체복, 백팩, 수건, 썬크림·화장품, 떡볶이, 항공권, 발리하이 맥주, 홍삼보 음료 등 다채로운 물품 후원과 함께 한식당 예원, 청담, 도마, 한옥의 만찬 지원이 있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가 현장 진행을 지원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자카르타경제신문]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니 섬유 수출, 글로벌 수요 회복에 올해 최대 3.2% 성장 전망



▲중부자카르타 따나야방 시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수출금융기관(LPEI)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이 올해 2~3.2%, 2027년에는 3.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들은 회복세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생산설비 현대화와 생산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금융기관(LPEI)에 따르면 직물 완제품은 인도네시아 전체 섬유 및 섬유제품(TPT) 수출의 약 74%를 차지한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품질과 적기 납품, 공급망 추적 가능성, 국제 표준 준수, 지속가능한 소재 등을 점점 더 요구하면서 수출 성장을 지속하려면 공급망 강화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카르모 빠드모수카르소 LPEI 전무이사는 지난 7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과 2027년 섬유 수출 증가 전망은 점진적인 수요 회복을 기반으로,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품질이 일관되며 꾸준히 주문이 이어지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인도네시아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출금융기관은 원사와 직물, 편

물 등 섬유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2025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일본,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중국, 미국이 주요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의류산업 성장도 인도네시아산 섬유 소재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베트남, 튀르키예와의 경쟁, 변화하는 무역정책, 고르지 못한 글로벌 수요 등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수카르모 전무이사는 “바이어의 요구에 적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수요 회복의 기회를 활용하고 수출을 지속가능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생산설비 현대화 역시 생산성, 에너지 효율성,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고 글로벌 바이어들의 강화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수출금융기관(LPEI)은 강조했다.

디지털화, 폐기물 처리, 친환경 기술 도입과 수출 주문을 위한 운전자금 확보도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도네시아 섬유및필라멘트사 생산자협회(APSyF)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마 회장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섬유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이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LPEI의 전망에 동의한다. 베트남과 인도 등 경쟁국들도 7% 이상의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2~3% 성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결정적인 요인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이라며 “산업 구조가 탄탄하다면 5%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레드마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생산비용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국내 산업의 통합 구조가 취약해 제조업체들이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원사와 직물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덤핑 수입품’이 국내에 유입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더욱 어려워져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경쟁국에도 추가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반드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는 지난 7일 섬유·의류산업이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36% 성장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섬유·의류산업 투자액은 11조 4천억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조 1900억 루피아보다 11.85% 증가했다.

올해 1~5월 섬유·의류 수출액은 4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억 7천만 달러에서 1.57%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34억 1천만 달러에서 35억 8천만

달러로 더 빠르게 늘었다.

섬유협회(API)는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산 섬유·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입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을 넘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조정부의 에디 뽀부디 관계자는 인구가 많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큰 시장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비즈니스닷컴에 “인구가 2억 명이 넘고 사계절이 있는 국가들은 섬유제품의 좋은 시장이며 인도네시아산 스포츠웨어와 신발·풋웨어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글 익힌 찌아찌아족, 이젠 “태권도” ...도복 100벌 기증 받아

한문화재단, 2021년부터 태권도 교육 지원...현지 대회 10개 상 휩쓸며 결실

한문화재단은 24일 오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한란)와 함께 인도네시아 부툼섬 바우바우시에 거주하는 찌아찌아족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복 100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한문화재단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찌아찌아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지원해 왔다. 현재는 학생과 일반인 등 90여 명이 매주 3회 바우바우시 경찰서 마당에 모여 3명의 현지 사범으로부터 한국어 구령에 맞춰 태권도를 배울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한문화재단,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 태권도복 전달 왼쪽부터 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 조기형 사무국장, 김한란 이사장, 크리스티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한문화재단 차민아 사무국장. [한문화재단 제공]

한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태권도를 배운 찌아찌아족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 발전재단, 대한체육회, 국기원 등

이 공동 주관한 태권도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 열린 ‘운하스컵(UHNAS Cup)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총 10개의 상을 받는 등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김준일 한문화재단 이사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문화를 수용하며, 문화 교류를 통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나눔 사업과 한국어 교육 사업을 꾸준히 후원하며, 한글과 한국어를 접목한 한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인니 실업률 하락에도, 해고 증가에 일자리 질 우려



▲2025년 브가시 취업 박람회장엔 몰린 구직자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계속되는 해고와 비공식 부문으로의 고용 이동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6년 5월 실업자는 722만 명으로, 실업률은 4.65%를 기록했다. 이는 2월의 4.68%보다 소폭 낮아진 수준이며, 실업자 수는 약 2만4천 명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는 1억4,819만 명으로 2월보다 52만2천 명 증가했고, 전체 노동력은 1억5,541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표면적인 고용 개선과 달리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계속되는 해고와 비공식 고용 중심의 구조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고돼 실직보험(JKP)에 등록된 근로자는 4만 3,80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부자바가 전체의 20.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1~5월까지 해고된 근로자가 최소 12만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상당수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해고가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비공식 근로자는 8,788만 명으로, 공식 근로자 6,031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0%에 불과했지만, 2월의 40.58%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이 대학 졸업자보다 직업고등학교와 폴리테크닉(전문대학과 유사) 졸업생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협회의 고용 부문 책임자인 볼 아잠은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확대하면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대 경제경영학부 경제사회연구소(LPEM FEB UI)가 2026년 7월 발표한 노동시장 보고서는 2025년 8월 노동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약 80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자신의 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적용해 근로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비교해 직무 불일치 정도를 측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스틸라 크리스띠 차관은 지난 6일 2021~2024년 실시된 졸업생 추적조사 결과 직업교육 졸업생의 약 77%가 취업한 반면, 일반 학문교육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은 72%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과 강사진 및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또 경제장관 장관은 지난 6일, 해고 사례가 장기간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흐름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보다 새롭게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해고 위험이 높은 산업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통계청이 고용 지표와 함께 빈곤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2026년 3월 기준 빈곤층은 2,2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7%를 차지해 2025년 9월의 8.25%보다 감소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코참, 'K-이니셔티브 2026 자카르타 진출기업 채용 상담회 및 멘토링' 개최



▲K-이니셔티브 2026 자카르타 진출기업 채용 상담회 및 멘토링(사진=코참)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는 8월 26일(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공동으로 'K-이니셔티브 2026 자카르타 진출기업 채용 상담회 및 멘토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2026 상공인의 날'에서 코참이 인도네시아 4개 대학(UI, UGM, UPI, UNAS) 한국어학과에 장학금을 전달한 이후 추진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 청년 구직자와 함께 한국어 전공 우수 인재와 한국기업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채용 상담회에서는 기관별 전담 대상을 나누어 효율성을 높였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한국인 구직자를, 코참은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예정)자를 각각 전담해 18개 한국 기업과의 1:1 맞춤형 매칭 및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대사관 정해관 공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사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

대하고, 우리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코참 이강현 회장은 "코참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채용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한국인 구직자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와 문화, 한국어 역량을 두루 갖춘 인도네시아 인재들이 함께하는 이번 자리가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 맞춤형 채용 상담회 이후 진행된 멘토링 만찬에서는 기업 관계자와 구직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선배 및 기업 관계자들과 취업 경험 및 현지 직장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코참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한국어 전공자와 진출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 지원이 실질적인 취업과 인재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참/자카르타경제신문]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인니 ‘스리텍스’ 전직 직원들, 다난따라 인수 소식에 기대... “퇴직금 받고 다시 일할 수 있길”



▲중부 자바 수라까르타에 있는 스리텍스 공장(사진=자카르타포스트/ Nani Afrida)

파산한 인도네시아 섬유업체 스리텍스(PT Sri Rejeki Isman ;Sritex)의 전직 직원들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의 스리텍스 자산 인수 계획이 체불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해결하고 공장 재가동과 재취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8일 전했다.

스리텍스 전 직원 대표 아구스는 17일 콤파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직원들이 여전히 퇴직금과 명절 상여금(THR), 기타 법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법정 권리와 퇴직금, THR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다난따라를 통해 발표한 스리텍스 자산 인수 계획을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스리텍스 관리인들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산 청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구스는 “퇴직금 지급을 기다리다 이미 세상을 떠난 동료도 많다”며 관리인들이 청산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직 직원 모임은 2024년 10월 스마랑 상업법원이 스리텍스의 파산을 선고한 이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대신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결

성됐다. 스리텍스는 2025년 3월에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

스리텍스에서 27년간 근무한 전직 직원 인드리는 17일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지급 퇴직금과 명절 상여금이 1천만 루피아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해고 이후 인도네시아식 과일 디저트인 에스 플르르(es teler)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직원들을 대리하는 마짜신 변호사는 스리텍스 관리인들과 회사 자산 처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 데는 진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인들로부터 스리텍스 자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해 국가자산경매청(KPKNL)에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전직 직원들은 다난따라의 스리텍스 자산 인수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마짜신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다난따라가 계획을 실행하고 자산 매각 대금이 전직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에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보도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다난따라가 관리인들에게 이미 접촉하거나 인수 제안을 하는 등 이번 인수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직 직원들은 스리텍스 공장이 다시 섬유 생산을 재개해 자신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마

짜신 변호사는 “다난따라가 실제로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다시 섬유 생산에 활용한다면 동료들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금을 받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난따라의 스리텍스 인수설은 최근 계속 제기돼 왔다. 콤파스(Kompas.id)에 따르면 도니 오스까리아 다난따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13일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의장에게 스리텍스 관리인들이 회사 자산 목록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난따라는 18일 스리텍스1과 스리텍스2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콤파스가 보도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천서 자카르타 찍고 롬복까지...가루다항공, 인도네시아 국내선 무료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가 Garuda 인도네시아항공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를 추가 비용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내선 무료(Free Domestic Flight)’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DiscoverMoreIndonesia’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카르타와 발리 등 대표적인 관문 도시를 넘어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여행지를 보다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국내선 연결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모션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여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내선 구간이 포함된 인천 출·도착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뒤 별도의 국내선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롬복 등 주요 도시를 연계해 여행 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현재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



오전 10시 35분 출발해 자카르타 현지에 오후 3시 40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수라바야와 족자카르타, 롬복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로 당일 연결이 가능하다. 연결 일정에 따라 자카르타 도착 후 현지

에서 오후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내선 무료 증정 프로모션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자카르타, 발리 등 단순한 관문 도시투어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다양하고 숨겨진 매력적인 여행지들을 더욱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여행객들이 Garuda 인도네시아항공의 국제선과 국내선 연결편을 이용해 더 많은 지역을 탐험하며 풍요로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팀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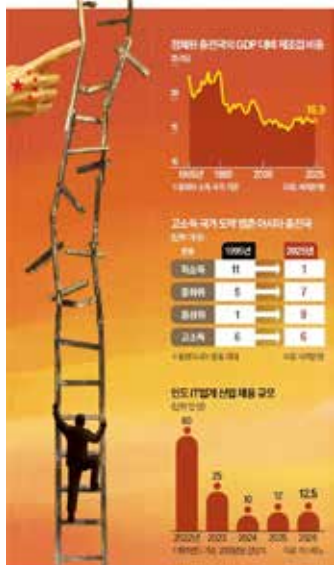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로봇 무장한 中 ‘제조업 독식’ 에…태국선 매달 100여곳 줄폐업

저임금 하청 중심 동남아 제조업, 중국의 스마트 공정에 밀려 고전
인도 제조업 비중 19%대로 추락, 중산층 감소하며 내수까지 위축



인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 인구는 2024년 4790만 명에서 2025년 4670만 명으로 줄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해고자는 3만2389명”이라며 “국제 경쟁력 하락, 생산 비용 상승 등 제조업 부문 전반의 경기가 둔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의 19.1%를 차지하는 섬유 산업 침체가 두드러졌다. 동남아 최대 섬유업체인 스리텍스는 파산 절차 끝에 지난해 3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시아퍼시픽섬유도 지난해 11월 공장 가동을 멈추고 1000명을 해고했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는 “섬유 산업의 생산 가동률이 45%에 불과하다”며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등 다른 중진국도 제조업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태국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1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가구,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및 철강을 생산하던 공장이다. 방콕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업체 아피코하이테크는 닷케이아시아에 “태국에 공장을 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동남아 국가는 단순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제조업이 구성되다 보니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양성에도 실패하며 산업화가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중국에 가로막힌 도약

인도네시아와 태국 사례에서 보듯 중진국의 도약 실패에는 중국이 공통 변수로 등장한다. 시와 로보틱스 등 첨단 제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국이 단순 조립·가공 산업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4.7%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도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경공업과 섬유 산업 등 전통 제조업에 시

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표적 노동 집약 제조업인 의류 생산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류 브랜드 보시당은 주요 공정에서 90%의 자동화율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 28일이던 생산 주기를 3일로 단축했다. 지난 5년간 디지털화와 스마트 제조에 10억위안(약 2126억원) 이상을 투자한 결과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르면 중국 저장성의 한 섬유 기업도 대형 프린팅·자수 기계를 도입하면서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다. 낮은 인건비가 핵심 경쟁력이던 의류·섬유 산업을 중국 기업이 자본·기술 집약 산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중진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을 명목으로 미국이 베트남과 멕시코 등에도 높은 무역 장벽을 쌓고 있어서다. 이에 글로벌 기업이 구사하던 ‘차이나 플러스 원’(중국과 함께 다른 나라에 생산기지를 두는 공급망 분산) 전략이 퇴조해 중진국의 제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경

인도네시아 하원 지도부, 노동계와 새 노동법 단독 제정 논의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지도부가 신규 노동법 제정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공식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13일 자카르타 스나안 의회 의사당에서 주요 노동조합 대표단을 초청해 노동법 개정안(RUU Ketenagakerjaan)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추춘 아흐마드 삼수리잘·사안 무스토파 하원 부의장, 봄 하산 하원 법제위원회(Baleg) 위원장, 푸티 사리 하원 제9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SI) 총재를 비롯해 모하마드 줌후르 히다얏 KSPSI 총위원장, 엘리 로시타 실라반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총연맹(KSBSI) 총재, 사이드 익발 고용·노동복지 부문 대통령 특별고문, 아리프 포유오노 총위원장이 이끄는 국영



▲인도네시아 하원은 13일 자카르타 스나안 의회 의사당에서 주요 노동조합 대표단을 초청해 노동법 개정안(RUU Ketenagakerjaan)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노동조합연맹(FSP BUMN) 대표단 등이 자리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무적인 제안 사항 중 법안 조문으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안 심의 과정 전반에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일 18개 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건의안을 접수해 소관 상임위인 제9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다스코 부의장은 “정식 회기가 시작되면 제9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충분한 대중 참여와 공청회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10월 일자리창출법(우니버스법) 내 노동 부문을 분리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가 제시한 시한에 맞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제정을 마쳐야 한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번 법안은 기존 2013년 제13호 법률의 단순 개정이지 아닌,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단행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원 전문처가 마련한 법률 초안은 총 19개 장, 2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방지 ▲임금 체계 ▲기간제 근로계약 ▲외주 및 파견(아웃소싱) ▲외국인 인력 채용 규제 등 노동계의 핵심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다스코 부의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노동조합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조율한 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를 비롯한 재계와의 이견 역시 대화를 통해 좁혀 나갈 것”이라며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인포스트]



BEST SELLER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EU 新포장규정 시작됐다…패션업계, 폴리백 · 배송포장 재설계 불가피

8월 12일부터 PPWR 일반 적용…공급망 전반 영향
2030년부터 재활용성 · 재생원료 · 과대포장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 Regulation (EU) 2025/40)’이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패션기업의 포장 · 물류 전략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으며 올해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이 일반 적용된다. EU는 포장폐기물을 2018년 대비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 줄인다는 목표 아래 재활용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규제의 본격적인 산업 영향은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 2028~2030년부터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류 폴리백 · 옷걸이도 규제 대상
패션업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규제 대상의 범위다. PPWR은 제품 박스뿐 아니라 의류와 함께 판매되는 옷걸이와 제품에 부착되는 일부 라벨, 파우치 · 백 · 필름 등 유연 플라스틱 포장도 포장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봉제공장에서 의류한 장씩 포장하는 투명 폴리백, 온라인 주문 배송용 포장봉투와 상자, 매장 · 물류센터 이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랍과 스트랩 등도 규제 검토 대상이 된다. 브랜드가 자체 상표와 디자인으로 포장을 제작하도록 주문한 경우에는 실제 포장재를 생산한 업체가 아니라 브랜드가 PPWR상 제조자 책임을 질 수도 있다. 2030년 이후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EU는 포장 유형별 ‘재활용을 위한 설계(DfR)’ 기준을 마련해 A~C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상 재활용성이 70%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사진=ChatGPT

미만인 포장은 기술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으로 분류된다. 패션기업 입장에서는 소재 자체보다 복합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 패키지에 플라스틱 코팅이나 금속성 장식, 별도 필름과 접착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향후 재활용성 평가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 등급은 EU가 마련할 세부 DfR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35%…온라인 ‘빈 박스’도 제한

플라스틱 포장에는 수치 기준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비접촉성 플라스틱 포장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 소비 후 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최소 35%, 2040년부터 65% 사용해야 한다.

의류 생산 · 물류 과정에서 사용하는 폴리백 등 플라스틱 포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브랜드와 공급업체는 재생원료 함량과 원료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라는 공급업체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EU가 마련할 산정 · 검증 체계에 맞춘 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진다.

온라인 패션기업에는 포장 빈 공간 50% 제한이 직접적인 부담이다. PPWR은 2030년부터 그룹 · 운송 ·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며 종이 완충재, 에어쿠션, 버블랩 등으로 채운 공간도 빈 공간으로 계산한다.

티셔츠 한두 장을 큰 규격 박스에 넣고 완충재로 공간을 채우는 방식은 앞으로 규제 대응에 불리해질 수 있다. 주문상품 크기에 맞춰 여러 규격의 박스와 봉투를 운용하거나 자동 포장장비를 활용해 배송 부피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럭셔리 패션의 대형 선물상자와 다층 패키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PPWR은 2030년부터 포장 중량과 부피를 제품 보호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제품을 실제로 다 크게 보이게 만드는 이중벽이나 가짜 바닥 등 불필요한 구조를 규제한다.

다만 2025년 2월 11일 이전부터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아온 일부 포장은 조건에 따라 예외가 가능해 모든 럭셔리 패키지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U 직판 한국 브랜드, EPR까지 점검해야

물류포장도 일회용 중심 구조에서 재사용 체계로 이동한다. PPWR은 2030년부터 팔레트, 플라스틱 크레이트, 트레이, 드럼, 팔레트 랍과 스트랩 등 일정 운송포장의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유럽 물류센터와 매장 사이에서 상품 이동이 많은 패션기업이라면 일회용 플라스틱 랍 · 토트 중심 운영을 회수 · 재사용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골판지 상자는 이 재사용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재활용성과 최소포장 원칙 등 다른 PPWR 규정은 적용된다.

한국 기업에는 생산자책임재활

용제도(EPR)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패션 브랜드는 포장폐기물이 발생하는 회원국에서 생산자로 분류돼 등록 · 보고 · EPR 비용 부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원국에 따라 현지 공인대리인 지정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PPWR 대응은 단순히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폴리백과 배송박스의 소재 · 부피를 줄이고, 재생원료와 재활용성을 입증하며, B2B 포장회수와 국가별 EPR까지 관리하는 공급망 개편으로 봐야 한다. EU 시장 비중이 높은 국내 섬유 패션기업일수록 2030년을 기다리기보다 포장재 사양과 공급업체 증빙체계를 지금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드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김재훈의 세무상식

세무조사 때 제출하지 못한 자료, 조세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국세청 훈령 SE-6/PJ/2026과 조세불복 시 증거자료 관리 —



김재훈 대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이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거래자료를 찾지 못하거나 본사 및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해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난 후 해당 자료를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 조세법원 심판청구(Banding)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2026년 7월 1일 국세청 훈령 SE-6/PJ/2026을 발령하였다. 동 훈령은 조세법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청구(Banding) 및 소송(Gugatan)에 대응하는 국세청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조세분쟁 처리의 명확성, 통일성 및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조사 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문제

인도네시아 기본세법(UU KUP) 제26A조 제4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요구받은 장부, 기록, 자료,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이의신청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 때문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이후 이의신청이나 조세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과세당국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적으로 배제된다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당시에는 거래처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지만 이후 자료를 확보한 경우, 회사의 과거 담당자가 퇴사하여 자료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납세자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닌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SE-6/PJ/2026에서 주목할 부분
이번 훈령에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조세법원 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단순히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KUP법 제26A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증거를 고려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당시 제3자로부터 얻지 못한 증거가 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고려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세불복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핵심은 “세무조사 당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가”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제출되지 않았는가”까지 중요

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

이번 훈령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경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낸 장부·기록·문서 제출 요청서,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자료 제출 의무 이행과 관련한 회의록, 납세자로부터 자료나 설명을 제공받은 사실에 관한 회의록, 그리고 납세자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의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세분쟁에서는 최종 세무조사 결과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요구받았고, 회사가 언제 무엇을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
이번 훈령을 계기로 기업의 세무조사 대응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첫째, 세무서로부터 받은 자료 요청서와 경고장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둘째,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목록과 접수증(Bukti Penerimaan)을 남겨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응 없이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 본사 자료 미도착, 거래처 확인 지연,

과거자료 확인 곤란 등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버려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Keberatan)을 거쳐 조세법원의 항소(Banding)까지 진행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초기부터 향후 조세불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세무조사 단계가 곧 조세불복의 시작

이번 SE-6/PJ/2026은 납세자에게 직접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다. 조세법원의 심판청구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내부 지침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의신청이나 조세법원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향후 조세불복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향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 과세당국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조세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세법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

라 증거와 기록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이 자료가 지금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이의신청이나 조세법원까지 간다면 이 자료와 기록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는 세금 추징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조세불복 절차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신문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피지컬 AI 확산 속 제조 양극화 심화...섬유판선은 ‘사람+로봇’ 하이브리드로

500인 이상 제조기업 47% 피지컬 AI 도입...생산성 32% 향상 기대
AGV · AMR에서 휴머노이드로...패션업계는 제직 · 염색 · 검사 · 물류부터

인공지능(AI)이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량을 예측하는 단계를 넘어 로봇과 설비를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 대형 제조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상용 또는 시범 형태로 피지컬 AI를 도입했고, 정부도 스마트공장 정책의 중심을 자동화에서 AI 기반 자율제조로 옮기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에서도 제직 · 편직 품질 예측, 염색조건 최적화, 비전검사, 물류 로봇, 디지털트윈을 거쳐 봉제 자동화로 이어지는 제조 AI 전환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사자 500인 이상 제조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지컬 AI 도입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7.0%가 이미 피지컬 AI를 도입했고 37.0%는 향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합계 84.0%다. 전 공정 · 부서에 도입한 기업은 4.0%에 불과했지만 일부 공정 · 부서 도입은 43.0%에 달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도입 · 도입예정 비율은 88.5%로 500~999인 기업의 68.2%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현재 제조현장에 가장 많이 들어간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가 아니다. 이미 도입한 기업의 활용 유형은 무인운반차(AGV) · 자율이동로봇(AMR)이 63.8%로 가장 높았고 자율주행차형 31.9%, 휴머노이드형 29.8% 순이었다.

반면 앞으로 도입하려는 기업에서는 휴머노이드형이 64.9%로 가장 높았다. 적용 분야도 조립 · 제작 공정 66.0%, 물류 · 운송 · 창고관리 57.4%가 중



▲피지컬 AI 전환이 가속화되며 제조현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심이였다. 제품 설계 · 개발은 17.0%, 품질진단 14.9%, 안전관리는 10.6%였다. 즉 제조 AI는 현재 ‘정형화된 이송과 반복 작업’에서 먼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복잡한 작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국내 제조업 전체의 AI 도입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이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월 인용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AI를 생산현장에 적용한 비율이 1.5%에 그쳤다. 조사 시점과 표본, ‘AI’와 ‘피지컬 AI’의 정의가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형 제조기업과 중소 제조현장 사이에 상당한 AI 전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된다. 섬유패션 제조업처럼 중소 · 영세 사업장이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서는 이 격차가 특히 중요한 변수다.

정부 정책도 ‘스마트공장 구

축’에서 ‘AI가 판단하고 공정을 제어하는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기부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통해 AI 중심 스마트공장 1만2000개 구축과 중소 제조기업 AI 도입률 10%, 제조AI 전문기업 50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는 자율형공장 30개,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400개, 대 · 중소 상생형 AI 트랙 20개 등 약 450개의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량 검출이나 예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공정 제어와 의사결정까지 자동화하는 방향이다.

산업통상부의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도 제조AI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MAX는 2025년 9월 출범한 뒤 현재 11개 분야에 1500개 이상의 기업 ·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2026년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과 AI 팩토리 · AI 로봇 모델 개발 등을 위해 관련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조 AI 경쟁의 핵심이 개별 장비 구매가 아니라 공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모델과 로봇 · 설비를 연결하는 ‘데이터-판단-실행’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섬유판선업계에서 제조 AI의 적용 순서는 다른 산업과 다소 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의 2026년 산업기술 R&D 연구기획에는 섬유 제조 전 공정을 대상으로 △제직 · 편직 품질 변동 예측과 공정 효율 제어 △염색 · 가공 공정조건 최적화와 에너지 · 탄소 저감 △신발용 섬유 소재의 다단공정 물성 예측 · 자율 최적화 △수요예측 기반 생산 · 공급망 계획 최적화 △전 공정 디지털트윈과 통합 의사결정 AI가 주요 연구 방향으로 제시됐다. 생산 · 품질 · 에너지 · 공급망 의사결정을 하나의 AI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는 섬유산업의 공정 특성과 맞닿아 있다. 제직 · 편직은 속도, 장력, 원사 상태와 설비 조건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계 데이터를 축적하면 결점과 이상 징후 예측에 AI를 적용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염색 · 가공은 온도 · 시간 · 약제 · 욕비 등 다수 조건이 색상과 물성,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를 통한 조건 최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단과 봉제품의 외관검사는 카메라와 비전 AI를 이용한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고, 완제품 · 원부자재 이송은 이미 제조업 전반에서 보급이 빠른 AGV · AMR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20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서도 섬유 분야의 지능형 공정 모델로 ‘섬유부품 조립 및 검사 공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 단위 실증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산업부의 ‘AX 기반 염색 · 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58억원을 투입해 AI · 로봇 기반 자율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목표는 봉제 자동화 장비와 제조 데이터 수집 · 처리 플랫폼, AI 봉제 대표모델 등을 구축해 디자인부터 시제품, 공정검증, 품질검사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제조 AI가 자동차 · 전자 중심의 대형 공장에서도 섬유 · 봉제 같은 전통 제조업으로 확산되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의류 봉제를 곧바로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부품이나 금속처럼 형태가 고정된 물체와 달리 원단은 집거나 이동하는 순간 구겨지고 늘어나며 형태가 변한다. 소재의 두께와 탄성, 마찰계수도 제품마다 달라 로봇이 원단을 정확히 파지하고 위치를 맞추며 일정한 봉제선을 유지하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

2026년 공개된 로봇 의류자동화 연구 사례에서도 연구진은 의류 자동화가 전자 · 자동차보다 어려운 이유로 이러한 ‘변형 가능한 소재(deformable fabric)’의 취급 문제를 지목했다. 연구진은 데님 제품 공정에 디지털트윈과 협동로봇, 비전 · 검증 시스템을 통합해 2차원 포켓 작업과 입체 봉제 작업을 단계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2026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8/31)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ANUGERAH ABADI BERSAMA	2026.01.28			5 JT	
2	WOO SHIN GARMENT	2026.01.28			5 JT	
3	KAHO INDAH	2026.01.28			5 JT	
4	CITRA UNGGUL PERKASA	2026.01.28	20 JT			
5	UNGARAN INDAH BUSANA	2026.01.28			5 JT	
6	LEADERS WORLD	2026.01.28			5 JT	
7	SEYANG ACTIVEWEAR	2026.01.28			5 JT	
8	GOLDEN GARMENTS	2026.01.29			5 JT	
9	DAE DONG	2026.01.29			5 JT	
10	YEONHEUNG MEGA SARI	2026.01.29			5 JT	
11	GAYA MAKMUR	2026.01.29			5 JT	
12	ING INTERNATIONAL	2026.01.29			5 JT	
13	INKORDAN	2026.01.30		30 JT		
14	JM TECH	2026.01.30			5 JT	
15	DASAN PAN PACIFIC	2026.01.30			5 JT	
16	TAE WON INDONESIA	2026.01.30			5 JT	
17	MUTIARA BUSANA INDAH	2026.02.02	20 JT			
18	MYUNG SEONG MACHINER	2026.02.04			5 JT	
19	DREAMWEAR	2026.02.04			5 JT	
20	TP.INC TRADING JAKARTA	2026.02.05		30 JT		
21	GAYA INDAH KHARISMA	2026.02.05	20 JT			
22	SOLVE IT	2026.02.06			5 JT	
23	OROM CONSULTING	2026.02.06	20 JT			
24	MULTI WELL EMBROIDERY	2026.02.09			5 JT	
25	KNH GAMINDO JAYA	2026.02.09			5 JT	
26	MUARA TUNGGAL	2026.02.09			5 JT	
27	PT.SCENIC	2026.02.09			5 JT	
28	LIMANTARA INDAH MAKMUR	2026.02.09			5 JT	
29	BLUE ROSE NARADO	2026.02.10			5 JT	
30	ANUGERAH ABADI MAGELANG	2026.02.10			5 JT	
31	MINU GARMENT SUKSES	2026.02.10			5 JT	
32	HANSOL PLEATS	2026.02.10			5 JT	
33	C- SITE TEXPIA	2026.02.11			5 JT	
34	WINNERS INTERNATIONAL	2026.02.12		30 JT		
35	PERMATA GARMENT	2026.02.12			5 JT	
36	RINA JAYA GARMENT	2026.02.13			5 JT	
37	MAJUJEL	2026.02.13			5 JT	
38	GLOBAL BUSANA INTERNATIONAL	2026.02.13			5 JT	
39	SJ CONSULTING	2026.02.18			5 JT	
40	ZIBEN INDONESIA	2026.02.20			5 JT	
41	WOORI SUKSES APPAREL	2026.02.21			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42	BINTANG GLOBAL ABADI	2026.02.23			5 JT	
43	PURNAMA ASIH SUR	2026.02.24			5 JT	
44	KG FASHION	2026.02.24			5 JT	
45	DONG JUNG INDONESIA	2026.02.25			5 JT	
46	YB APPAREL	2026.02.25			5 JT	
47	PT.ACE	2026.02.25			5 JT	
48	DOOSAN CIPTA BUSANA JAYA	2026.02.25		30 JT		
49	DONG IL	2026.02.26			5 JT	
50	SUKWANG INDONESIA	2026.03.05		30 JT		
51	HOKI MACHINE INDONESIA	2026.03.05			5 JT	
52	UNICORN	2026.03.06			5 JT	
53	DOORI LESTARI GARMENT	2026.03.10			5 JT	
54	JUN H INDONESIA	2026.03.10			5 JT	
55	HESED INDONESIA	2026.03.17	20 JT			
56	DONG YANG NISUSINDO	2026.04.01			5 JT	
57	BANGUN MAJU LESTARI	2026.04.09	50 JT			
58	DAYUP INDO	2026.04.13			5 JT	
59	IMPIAN ANUGERA LESTARI	2026.04.16			5 JT	
60	KARYA TRI ABADI	2026.04.25			5 JT	
61	JS JAKARTA	2026.04.30		30 JT		
62	HARAPAN GLOBAL APPAREL	2026.05.04			5 JT	
63	YONGJIN	2026.05.04			3,5 JT	
64	SUNGBO	2026.05.04			5 JT	
65	YURI INDO APPAREL	2026.05.04			5 JT	
66	GLOBAL TRIMS CREATOR	2026.05.05			5 JT	
67	PETRASAKTI MADYATAMA	2026.05.07		30 JT		
68	SEYOUNG INDUSTRY	2026.05.08			5 JT	
69	PT.SUCI PINTAK	2026.05.18			5 JT	
70	PT.KOTEK INDAH	2026.05.20			5 JT	
71	INDO BOX UTAMA	2026.05.20			5 JT	
72	HANSAE	2026.05.21		30 JT		
73	TA GLOBAL INDONESIA	2026.05.26			5 JT	
74	KOREA VILENE	2026.06.05			5 JT	
75	DK INTERNATIONAL	2026.06.08			5 JT	
76	SAM SAM JAYA GARMENT	2026.06.10			5 JT	
77	GREEN ON INDONESIA	2026.06.24			5 JT	
78	SEJIN GLOBAL INDONESIA	2026.06.26			5 JT	
79	DELTA MATE MAJALENGKA	2026.07.13			5 JT	
80	DONGSAN HOLDINGS	2026.07.30			5 JT	
81	KEUMKWANG SEMYU INDONESIA	2026.07.30	20 JT			

적으로 실증했지만, 실제 공장 적용을 위해서는 로봇 자체뿐 아니라 생산도면을 로봇 작업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스레드, 충돌·봉제선 모니터링, 기존 봉제기와의 연동, 작업자 교육까지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직 모든 종류의 의류를 범용적으로 처리하는 완전 무인 봉제공장이 상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섬유패션 제

조는 사람이 하기 힘든 반복·이송·검사 작업을 시와 로봇이 맡고 숙련자는 다품종 대응과 고난도 봉제, 설비관리, 품질판단에 집중하는 하이브리드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타일과 소재가 자주 바뀌는 패션 생산에서는 한 품목을 빠르게 대량생산하는 능력보다 제품 전환시간을 줄이고 소량 주문과 리오더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유연성이 투자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기업들의 기대는 크다. 경총 조사에서 피지컬 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84개사는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31.9%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대 효과

는 생산성·실적 향상 45.2%, 구인난 등 인력운용 문제 해소 26.2%,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위험 감소 22.6% 순이었다. 특히 500~999인 기업에서는 ‘인

력운용 어려움 해소’가 66.7%로 가장 높아 인력난이 자동화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하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최초 화장품학과 만든다...아세안 뷰티 고도화

파자자란 대학교 약학대학 화장품학 신설
피부·모발 기초 연구부터 제형 개발 등 교육

화장품 ODM기업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최초 화장품 특화 학과 개설에 동참하며 아세안 뷰티 시장을 이끌 핵심 R&D(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한다. 현지 화장품 산업을 제조에서 R&D 중심으로 혁신해 인도네시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뷰티 생태계 고도화에 앞장선다.

코스맥스는 28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소재 국립대인 ‘파자자란 대학교(Universitas Padjadjaran, 이하 UNPAD)’ 약학대학 내 화장품학 학사과정 개설에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학과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화장품 특화 학부 과정이다. 피부·모발 관련 기초 연구부터 제형 개발, 안전성

및 효능 평가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연구개발의 전 과정을 다룬다.

이는 기존 제조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이 처방 및 연구 역량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변곡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오는 2026년 10월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와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문 R&D 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전망이다.

코스맥스는 신규 학과 개설과 함께 진행된 ‘ABG(Academia-Business-Government) 프로그램’ 출범식에서도 현지 산업계를 대표하는 파트너로 선정

됐다. ABG 프로그램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이전해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번 협력으로 코스맥스인도네시아와 UNPAD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현지 전통 발효 식품인 ‘뽀뽀약(Tempoyak, 두리안 발효 식품)’을 활용한 향산화 소재 개발 △‘홍국(Angkak)’ 발효를 통한 미백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코스맥스는 학생들이 연구 결과를 실제 제조 및 상품화로 연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 ‘교육용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화장품 ODM기업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최초 화장품 특화 학과 개설에 동참하며 아세안 뷰티 시장을 이끌 핵심 R&D(연구개발) 인재를 키운다. /코스맥스

또한 연중 상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 현지 맞춤형 R&D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육성한다.

정민경 코스맥스인도네시아 법인장은 “현지 산학협력을 지속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글로벌로 인정받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스맥스는 올해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회 코스맥스 이노베이션 콘퍼런스 2026’를 개최하며, 생애주기에 기반한 웰니스 뷰티 솔루션을 제시했다. 외면적 아름다움을 넘어 피부 본연의 건강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전략 등을 공유했다.

THE FACT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에어 컴프레서



KAF V Series
Premium Oil-Free VSD Screw Compressors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